청각 장애인과 함께 '수화로 법회'

신행현장

동국대 손짓사랑회

7월 29일 오후 7시 강원도 횡성 대승사 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 웅성거림에는 경전을 읽는 듯한 리듬이 있는 터라, 단순한 소음은 아니었다. 소리의 정체는 바로 20여 청각 장애자들의 독경이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지만, 동국대 손짓사랑회(회장 신광준 · 전자공학) 소속 대학생 봉사자들의 손놀림을 보면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1일까지 3박 4일간 계속된 수련회인 만큼 손짓사랑회의 활동은 법회에서 끝나지 않았다. '교리공부', '사주공부' 등으로 3시간 남짓 진행된 교양강좌나, 계곡을 찾아가 가졌던 청각장애인과 정상인간의 '대화의 시간'에서도 손짓사랑회의 수화는 계속됐다.

"5명의 회원들이 3일간 수련회에 동참해 매 시간마다 교대하며 수화 통역을 했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신 회장은 "마음과 손으로 대화 가능한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해 말하지 못하는 걸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수화로 청각장애인을 돕고 있지만, 형이나 아저씨뻘 되는 분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배움도 적잖다"고 말했다.

신 씨의 말은 그만의 생각이 아니다. 동국대 손짓사랑회 150여 회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는 회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되는 손짓사랑회 자체 교육에서 불교 수화를 배우며 업과 자비 사상을 통해 자신의 봉사활동의 의미를 찾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떨쳐내는 과정을 반복했기에 가능했다.

"마음과 손으로 대화 서로 속마음 나눠요"

90년 동아리 결성 150여 회원 믿음 '쑥쑥'

불교 수화란 손짓사랑회의 지도법사인 해성 스님(광림사 주지)이 95년 〈불교 용어 수화집〉을 발간하면서 구체화 됐다. 손짓사랑회 회원들은 자체 교육 과정을 통해 불교 수화로 반야심경, 삼귀의, 사홍서원, 찬불가 등과 같이 법회 진행에 필요한 불교 수화를 익히는 것은 물론 〈부처님 전생담〉, 〈금강경〉, 〈화엄경〉 등을 수화로 옮기는 연습도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하심을 배우고 분별심도 떨쳐내며 신심을 차곡차곡 채우고 있다.



◇동국대 손짓사랑회 회원들이 광림사 연화복지원의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하계수련회를 진행하는 모습.

90년 동국대 동아리로 결성된 손짓사랑회는, 사실 불교신행단체로 출발하지는 않았다. 신 회장에 따르면 95년 해성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되면서 불교신행단체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지금도 매년 100여 명의 신입회원들이 들어오지만, 이 중 40% 정도는 기독교나 무교다. 이런 상황에서 손짓사랑회가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불교신행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불교 수화를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1~2년간의 교육과 매주 광림사 연화복지원을 방문, 수화 봉사로 청각장애인의 법회 진행을 돕다보면 회원 대부분 불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물론 손짓사랑회의 활동은 광림사의 청각장애인 돕기에 그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 초 · 중 · 고 종합학교인 선희학교, 종립 중 · 고등학교를 비롯해 일반학교 C.A 강사로도 활동하고 청각장애인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동참하며 신행 현장을 넓히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불자 청각 장애인 사이에서는 손짓사랑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타 종교 단체와 비교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적다"고 말한 신 씨는 "2학기부터 교양강좌로 수화를 개설해 줄 것을 학교에 공식 요청해 수화 보급에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짓사랑회 회원들은 관련 자료 수집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오종욱 기자

생활속의 불교

참 스승은 누구인가

눈이 먼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하고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는 목발이 필요하듯이, 불법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스승이 필요하다.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가 쉽지 않고, 태어나서 불법 만나기가 또 어렵다고 한다. 그러는 중에도 선지식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한다.

원효는 대안대사를 만났고 혜가는 달마대사를 만났다. 역대 조사들도, 큰 스님들도 다 눈밝은 스승을 만나 인도를 받았다.

이 혼탁한 세상에 중생의 심안을 밝혀줄 스승은 누구인가?

임제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겠노라' 고, 그렇다면 진정코 참다운 스승은 누구란 말인가?

선사의 살불살조(殺佛殺祖)정신은 '자기 밖의 스승'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요, 타력에 매달리는 중생에 대한 경고이다.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 고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 밖의 것은 다 허상이요 우상이다. 설사 내 앞에 달마대사가 있다 해도 깨닫는 주체는 '나'이지 달마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식이라도 나를 대신하여 깨달아 줄 수는 없다.

진정한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깨닫는 주체는 '나'이다.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일 뿐인 것이다.

선지식은 지팡이요 목발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이정표이다. 음식점의 메뉴판이요, 지도(地圖)이다. 결코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만중생이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일깨워 주는 데는 산과 물, 선지식이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상에 이끌려 이름명성을 좇고 모양을 집착한다. 장님을 따라가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경우다.

혜가의 스승은 달마대사지만 깨달은 이는 혜가였다. 스스로 먹고 배부른 것은 혜가였지 달마가 아니었다.

무엇이 참 스승인 줄 알아야 비로소 올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달마도 대안도 스승 노릇을 할 수가 없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삶 과연 행복하십니까?"



정호스님
용인 대각사 주지

행복의 추구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며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절을 찾는 사람 중 유난히 고질적인 두통이나 위통, 여러 병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냐고 물으면 이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냐고 또 묻게 됩니다. 그렇게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인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멍들고 상처난 마음 '느림의 여유'로 치유

우리는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한 때 뿐인 감각적 쾌락을 위해, 또 과시적 삶의 온갖 허상들을 위해 소비적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많은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의식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물 불 가리지 않고 행동하면서, 온통 멍들고 상처난 내면의 자아를 방치해 두고 숨기면서 자신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애썼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한다면서, 실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지혜없는 중생은 자기에 대해서 원수처럼 행동한다. 욕심에 따라 악한 업 지어서 스스로 고통의 결과를 얻는다"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행복을 추구한다면서 실상은 자신을 모진 업과 인과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없이 피로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존재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행복의 아님을 자각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점을 자각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개인의 한계를 잊지 않고 타인과의 공동행복, 화합을 추구하면서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불행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려 애씁니다.

이 세상의 이치 속에 '나 혼자만의 것'이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세상이 운용되는 이치를 깊이 들여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는,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못 생명들의 희생에 의해 지탱되어 왔습니다. 당장 다른 식물, 동물, 광물 등의 에너지로부터 음식을 채워주어야만 생존이 해결되는 몸뚱이를 가진 것이 인간을 비롯한 이 지구상의 생명들, 중생들이 아닌가요. 그리하여 내가 불평하며 살아가는 하루, 한 시간, 일분 동안이 뭇 생명들의 희생 위에 건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자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내 삶이라는 것 또한 나만의 의지나 물리적 능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요. 만병의 원인이라는 스트레스도 사실은 자신이 만들어낸 집착과 욕망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의식이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지 요즘 시류에 '느림'이라는 말이 흔하게 들립니다. 느림의 의미 속에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누군가를 추월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여유를 느끼면서 살고자 하는 현대인들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 변화의지가 함축되어 있는 듯 보여 반가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요사이 여름 휴가를 산사를 찾아 수행하며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일 겁니다.

행복은 끊임없는 주변과 내면을 들보는 데서 찾아옵니다.

신행 캘린더

8월 16일 (목)

■연수원 낙성식=한국불교연구원은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소재 연수원 낙성식을 갖는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연수원 법당에 조성된 불상 점안식도 봉행한다.(02)3411-6167

■시민법회=영산법화사는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월례 시민법회를 봉행한다.(02)762-4622

■해인사 불사 토론회=조계종중앙신도회는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14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해인사 불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한다.(02)733-7277

■지역법등법회=법장사는 오후 2시 '기도하는 마음, 포교하는 기쁨'을 주제로 지역법등법회를 봉행한다.(02)971-0303

8월 17일 (금)

■여름수련법회=제주도 원명선원은 20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름수련법회를 실시한다.(064)755-3322

8월 18일 (토)

■봉황자원봉사단 창립법회=대한불교조계종 9교구 본사 동화사 봉황자원봉사단은 오후 2시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53)982-0101~2

■하불동 수계법회=하이텔불교동우회는 19일까지 법주사에서 제6회 하계수계법회를 개최한다.(033)253-4577

8월 19일 (일)

■제28회 상월원각 대조사기배 배구대회=제28회 상월원각 대조사기배 천태종 전국 청년회 배구대회가 오전 7시30분 단양군 영춘면 영춘중학교에서 열린다.(043)423-7100

■어린이 역사기행=광주불교교육원 부설 우리문화 역사기행단은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역사기행'을 실시한다. 행선지는 승주-송광사.(062)228-9098

8월 20일 (월)

■여름수련학교=보성 대원사는 23일까지 여름수련학교를 개최한다. 4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수련학교는 예불, 참선, 찬불가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된다.(061)853-1755

8월 21일 (화)

■대우중기 법우회 체육대회=대우종합기계(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법우회는 외동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055)280-4414

질 의 서

귀의 삼보하옵고,
1994. 2월경 조계산 선암사 주지 선출시 크게 하자(절차상)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하고 주지 당선자(지허)를 인정키로 하였음은 선암사의 명예에 관한 점과 당선자는 이를 계기로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주지직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리고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급기야(1997.2) 본사 대중(32인)이 본사 설선당에 모여 정화추진위(위원장 남금암)를 결성 당 주지의 부실(7개항)를 지적 탄핵하고 즉시 임시 전산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 받아 주지 해임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앞서 지적한 7개항의 부실에 관하여 한마디 명쾌한 해명 없이 2001. 3월 경 편법을 동원 본사 주지직에 취임하였기에 이를 현대불교(제307호, 2001. 2. 21)지에 "고언"이란 제하의 글로 지적한 바 있고 2001.4 석가탄신 "봉축행사 봉행"하고 당주지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내용증명)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어 부득이 앞서 탄핵사항중 일부인 아래 적시한 내용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1. 무릇 승려란 무소유를 제 1의 덕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천쪽가사)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스님께서는 매매취득 및 특조법 취득, 가등기등의 방법으로 총 4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자녀를 외국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스님께서는 17세에 승문에 들어 승려의 신분이외 달리 생활한 바 없고 부모로부터 유산이나 타인으로부터 기증 받은바 없는 스님이 위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제원의 근거는 무엇이고

2. 1984년에 구입한 낙안면 상송리 1, 2, 3 (답)지번에 1986년 경 건립한 금둔사는 주변임야(국유림) 약 2,000여평에 여러 전각들을 1993년까지의 사이 건립하여 지금은 거대한 사찰로 변모하였고 위 1, 2, 3 지상에 기히 건립된(전각)바 있는 지목이 1989년 잡종지로 지목변경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면적의 국유림에 여러 전각을 세울 수 있고 건물있는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둔갑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지요

위 1, 2, 직시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불기 2545. 8

조계산 선암사 재적승 혜강 합장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조사가 서쪽에서온 큰 뜻은?
직지인심 교외별전
不立文字 見性成佛에 있으며
고집멸도의 반야심경 시대는 지나고 새인류 도법의 고집진도의 반야심경 여래후후오백세 2500년 불법이 도래된 지게 수복자 달마의 근본법도 진 태양
● 오본래자토 五本來玆土
● 전법구미정 傳法救迷情
● 일화개오엽 一華開五葉
● 결과자연성 結果自然成
心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경국제서화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작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성인병에 즉효로 알려진 우리 민간 어성초 항암 효과 크다
한국최고(最高)민간약초 부산大 연구팀 조사

삼백초(三白草)의 특징
◇ 이뇨 해독 작용
◇ 항균 소종작용
◇ 성인병 예방
◇ 특히 간장, 신장 중액경화
◇ 특히 항암효과
◇ 체질과 관계가 없음
◇ 면역력 증강

어성초(魚腥草)의 특징
◇ 이용과 체중조절의 적 체내 독소제거의 탁월한 효과
◇ 설파민의 4만배 이상의 항암 효과 (신장염등 몸중 중상에 효과적)
◇ 염증을 없애주는 데카노닌 이세드 알데데히드 함유
◇ 은행잎에 못지 않는 플라보노이드가 피를 정화
◇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염의 보고
◇ 모세혈관의 확장에 관한 연구진행

생즙, 발효액, 액기스, 건조등

* 구 입 처 : 부산 북구 만덕 2동 백양상가 백화약초 상회
* 전 화 : 051)338-4066 휴 011)9524-9023
* 농협구좌 : 121-32-52-188043 김경애
* 약사도량, 달마선원, 만덕포교원, 여여심 합장
* 수익금은 만덕포교원 건립기금으로 쓰여짐

제 65회 견우직녀칠석용맹정진특별
세계달마 미륵 도통 경신대법회

이 기도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8월 24일 8월 25일, 자시와 오시에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잣대를 얻어 증상운 120세의 천안통 숙명통에 도전하여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을 대자연의 천지신명과 염라대왕에 진법을 받아 사명자 도인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재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꺼리는 잡도에 끌리여 눈먼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즉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日本은 우리의 강산에 쇠못을 밖고 중국헌원황제는 우리의 마음에 쇠못을 밖은 사실을 당신은 알고계십니까?
2000년 5월 9일의 하늘의 대서사시 우당바라의 비밀을..
이 법의 소식은 萬有 · 形 · 象법의 잣대로 설계 법측, 법칙 천공, 만유의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하며, 다만 잡신에 끌리여 억망진창을 왜 모르며 몸에 태산같은 중병과 욕심과 명예의 삼독을 벗고 말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특히 칠월 칠석 경신 기도에 득도하시어 몸에 살이찌는 병, 잡신,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시는 분을 소멸하시고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명자, 진인 도통일류 스승 되시고 도를 통하여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 입 제 : 양력 8월 24일 밤 10시 ~ 8월 25일 亥時에 해제
● 동참금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목요일 밤 입제
●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동참
02) 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출구 버스 85,25,95,26,303,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약사회골목입구

달마 진인 경신 도통회장
한국불교 달마종 총 본산 약사도량 달마선원장 天龍眞人 泰日法師